

## “교회 오실래요” 한 마디면 교회 갈텐데

백 투 처치 선데이에 2만7천 교회 참여

미국에서 예배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National Back to Church Sunday)’ 캠페인에 올해는 2만7천여 교회가 참여했다.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일예배로 초청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감소세에 있는 미국 교회의 예배 참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 이래로 매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왔다. 캠페인의 창안자인 스킷 에반스 목사(아웃리치 인터내셔널 설립자)는 “이 운동은 600여 개 교회만의 참여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 많은 교인들이 더욱 쉽게 지인들을 예배에 초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처럼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반스 목사는 이 캠페인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 중 다수가 예배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착안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당시 미국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82%는 누군가가 예배에 초청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으나, 교인들의 2%만이 1년에 한 명을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만들어진 것이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 캠페인이다.

에반스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지인을 예배에 초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사를 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 캠페인은 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에반스 목사는 한편,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의 효과는 단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교회들의 평상시 예배 인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손현정 기자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17가정, 25명이 나성순복음교회의 <선교사 가족 초청대회>에 참석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여의도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총회(회장 정병성 선교사) 소속 선교사들로 코트디부아르, 케냐, 탄자니아, 가나, 우간다, 남아공, 르완다의 오지에서 일주인 선교 중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은 물론, LA 관광, 창조과학 탐사여행 등으로 미국을 체험한다. 특히 교회의 각 구역과 선교사가 결연해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도전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라는 슬로건 아래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 다민족연합기도회 “주여!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앞두고 한인교회들의 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7월 1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첫 기도모임을 한 이래, 사우스베이,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거쳐 10월 1일 LA 지역에서도 기도회 및 설명회가 열렸다.

이 다민족기도회는 11월 11일 애너하임의 혼다센터(Honda Center)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기도회 중 황금시간대라 할 수 있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한인교회가 인도하는 특별기도시간으로 예정됐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A Line in the Sand>는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에서 다민족기도회를 개최했으며 3만5천여 명이 참석해 대부흥을 간구한 바 있다. 당시 한인교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넘는 1만2천명이 참석했고 특별



다민족기도회 LA 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

히 한국식 통성기도와 주여 삼창을 통해 미국 주류교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주최측의 대표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는 “한인들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위기의 때다. 기도해야 한다. 역대하7장14절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 및 다민족사회와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

도 인상적이지만 한인교계 안에서의 연합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기도회에는 남가주교협, OC교협,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남가주청년사역자연합, 미기총, JAMA 등이 동참하며 각 지역 교회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인들은 지역별로 중보기도회를 열 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교회들이 행사를 영적으로 준비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루를 정해 연쇄금식기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동성결혼 주례 거부하면 감옥행” 대책은?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에서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목회자 법률 세미나가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베들레헴교회(1128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지난 1회 세미나에서는 종교 부지 사용 문제와 목회자 상담 내용에 관한 법정 증언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 제2회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를 이슈로 다룬다.

태평양법률협회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거나 교회 대여를 요청할 시 목회자가 이를 거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유지장에 수감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또 무신론자들이 교회의 비영리 단체 면세 혜택 박탈을 시도하는 일, 교회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청소년 사역 담당자로 고용해야 하는 일 등에 대한 해법도 나누게 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태평양법률협회의 대표인 브래드 다크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강의를 전하고 질문과 답을 교환하게 된다. 등록비는 없다. 문의) 주성철 목사(714-640-7471)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난 거대한 산성 도시 마르딘. 아타톨리아의 끝자락에 있는 고대 도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해발 1000미터의 거대한 하나의 산을 향해 들어가는 데 가까이 갈수록 큰 산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덮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그 산을 덮고 있는 시가지가 구 마르딘이며, 지금 그 산을 넘어 남쪽 산 밑으로 신 마르딘,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가 높이 솟은 빌딩과 아파트와 함께 펼쳐집니다. 구 마르딘은 수천년 세월 동안 고대종교로부터 고대 수리아정교회, 알미니아정교회,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들의 본부 역할을 해 온 말그대로 종교 도시였고, 온 건물이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고대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빈곤층은 구 마르딘에 살고, 중산층과 부유층들은 신 마르딘에 거처를 잡고 있어 마치 마르딘은 한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있는 거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평신도 선교사인 엔텔 패커는 쿠르드 민족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오늘 저녁 여러 손님이 오시게 되어 같이 시간을 보내자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5살, 3살, 2살 짜리 인형같이 예쁜 세 딸이 있는 매우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온 손님들은 그와 같이 동역하는 독일인 선교사 말크스, 서부 코사다스에서 온 독일인 선교사 안드레아와 루돌프, 그리고 독일교회에서 대표로 온 발드마와 루디라고 하는 집사들이었습니다.

엔텔패커 선교사의 소개로 서로 인사를 한 후 이슬람식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그들은 본격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독일어와 터키어가 섞여서 오가는 대화를 듣는 중에 안드레아 선교사가 제 곁으로 일부러 와서 영어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

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교회연합에서 두 대표를 보내 터키에 국경 지역으로 찾아져 들어오는 수 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구제할 방안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독일 대표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1차 예산은 수만 달러. 난민 구제 사업이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이어서 2차, 3차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 일을 두 대표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두 대표는 사역지에서 독일교회가 믿고 선교비를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역자를 찾는 중에 마르딘의 엔텔 선교사와 말크스 선교사를 추천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 시간 그들은 대화했고 이제 시간이 깊어져서 두 대표는 이 일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독일교회 대표 중 한 분이 엔텔 패커에게 이곳에 선교사로 오기까지 신앙간증을 해 달라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엔텔 패커는 자기를 은은한 미소로 바라보는 아내를 보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쿠르드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 쿠르드는 터키에게서 독립하길 원하는 민족입니다. 그는 쿠르드 독립을 위한 약명 높은 테러단체인 패케게에 가입하여 1년 여 간 군사 훈련과 폭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부의 지령에 따라 어디든지 가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한 후 알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성경책을 접

하게 되었고 테러 훈련을 받는 중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매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분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패케게에 대하여 접점 회의가 들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야간에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이라크군에게 잡혔는데 국적이 터키인이라 터키군에 인계되었고, 터키 법정에서 패케게 훈련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1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1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하던 중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자신에겐 이미 청춘을 바쳤던 꿈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고향인 디야르바크르 성벽 위에 올라가 자살해하겠다고 생각하던 중, 저만치에 빨간 십자가 싸인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성경책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곳을 찾았는데 거기 바로 수리아정교회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더 알고자 애쓰다가 하나님 인도로 지금 자기를 파송한 디야르바크르개 신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던 때가 2007년 4월경. 그때 그는 멀리 떨어진 말라티아에서 기독교인 3명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교자 중에 두 분은 목사님이셨지만 한분은 평신도인 우르라고 하는 터키인 형제임을 알고 자신이 그 우르 형제의 믿음을 계승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다

음 주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4년 여 간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후 이 곳에 파송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음성과 자세, 그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 그때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이 글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의 간증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간증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들의 임무를 엔텔 패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 곁에서 계속 듣고 있던 우리 피터 김 목사에게 기도회 인도를 청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성령이 뜨거운 은총을 모두의 가슴에 폭포수처럼 부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모두는 그들이 도우려고 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우거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 산재하여 도시 속의 폐허 가옥들 속에, 개천 밑에, 외진 수풀 속에, 식수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의 눈빛은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정부군 폭탄에 죽임을 당하였고, 가족중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즐비했

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디서부터 손을 펼쳐야 할지 너무 비참해서,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상태로 줄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을 둘러보고 난민촌을 떠나 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을 놓아두고 가는 것 자체가 큰 죄 짓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공항을 향했습니다. 공항 가는 내내 차 안은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공통의 생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서로 인사하기 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뺨 둘러서서 힘심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천국에서 보자 하며 헤어졌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향해 독일인 말크스 선교사가 “어제 당신들이 우리 대화 가운데 있어 주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꼭 다시 한번 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터 목사와 나는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로 바라보며 침묵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순례길에 동행해 주신 성령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끝>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KCCC 사역자와 청년·EM 사역자들이 Higher Calling 준비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 미주성결대 ATS 가입 기념

#### 감사에배와 후원의 밤

미주성결대학교가 ATS 준회원으로서 가입된 것을 기념해 감사에배를 드리고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미주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학교인 미주성결대는 2001년 설립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2012년 2월 성서대학협의회(ABHE)로부터 준회원 자격 획득을 획득했고 같은 해 6월 1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을 구입했다.

2013년 6월에 연방정부로부터 유학생 비자(I-20) 발행을 허가받고 7월에는 연방정부 장학금과 용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절차와 교육수준을 인정받아 지난 6월의 미주신학대학원협의회인 ATS에 준회원 가입을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학교 측은 "그 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의 비전이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면서 "본교의 사명이자 설립비전인 세계 선교의 일꾼을 양성하여 선교사, 목회자, 상담가, 채플린, 간호사 등 전문사역자를 파송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길 총장

후원의 밤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교수진 임용, 실습실 등의 최신시설 설비, 실습용품과 도서 및 관련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후원의 밤 행사는 12일(주일) 오후 4시, 미주성결대학교(1818 S. Western Ave, 2nd Fl. Los Angeles, CA 90006)에서 열리며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이 메시지를 전한다.

김나래 기자

### 이지선 작가, 임은주 선교사가 함께하는 경건회

"경건과 학문"을 지향하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10월 경건회를 마련했다.

특별순서로 마련된 이번 경건회에는 나섬영락교회에서 파송된 임은주 선교사와 "지선이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작가가 함께 참

석해 "메콩강 유역 위기의 어린이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시연한다. 경건회는 본교 채플실(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에서 10월 20일(월),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50분에 걸쳐 진행된다. 문의) 562-926-1023

## 한인 2세 청년들 "더 높은 부르심" 향해

### KCCC, 올해 말 Higher Calling 컨퍼런스 The Light 주제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세우려 합니다."

KCCC가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 "Higher Calling(더 높은 부르심)"이 올해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엔터테인먼트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해에는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선교로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헌신을 다짐했다.

올해의 주제는 "The Light"다. LA KCCC 대표 이영복 목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샘 고 목사는 "한인들의

세대 간 아픔을 끌어 안으며 회개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회에 참석했던 이예찬 학생은 "착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던 저에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선교적 신앙, 타인을 품는 마음'을 준 집회였다"라고 회고했다.

이 컨퍼런스의 특징은 1세와 2세 목회자를 모두 경험한 박영은 목사, 한인인으로서 미국인 다민족을 목회하는 유진 조 목사, 미국 청소년 사역자 그렉 스티어 목사, 미주 KCCC 대표 김동환 목사 등 쟁쟁한 강사진 외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사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모든 집회 후 이뤄지는 소그룹 모임이 더 큰 강점이다. 이 모임에서 많은 불신자 청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도 KCCC는 소그룹 리더들이 회의와 훈련, 기도로 준비 중이다. 컨퍼런스가 컨퍼런스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해 지난해 집회 후에는 미주 5개 지역에서 750여 청년들이 단기선교에 헌신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이 집회는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토론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문의) 213-389-5222 김준형 기자

## 임마누엘장학회 제4회 창립기념예배와 장학금 수여식

### 6개 신학대 학생 28명에게 총 1만3천불 수여

사단법인 임마누엘장학회(회장 장철익)가 창립 4주년을 맞아 9월 30일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임마누엘장학회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학생들에게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 미래의 유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려는 동기로 2010년 출범했다.

첫 해인 2010년 에반젤뉴욕신학대학교와 멕시코성결신학교의 신학생 40명에게 총7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2011년에는 베데스다대

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 신학생 52명에게 총 1만1천불을 수여했다. 다음해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만5천불과 1만2천5백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총161명이 4만5천5백불의 장학 혜택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1부 4주년 기념축하예배와 2부 장학금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두 순서 모두 조성현 선교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효인 교수(베데스다대 학생처장)가 대표기도를 한 후 월드미션대학교의 김미진 학생이 특송을 불렀다.

설교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는 "여러분이 받은 장학금은 정성, 사랑, 눈물로 주어진 것이니 이 빛을 갚아야 한다. 목회가 본 궤도에 오르면 여러분도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여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전심전력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도 증거를 받는 장학금 수여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뉴욕 신학대, 베데스다대, 월드미션대, 에반젤리아대, 미주장로회신학대, 멕시코성결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 28명에게 총 1만3천불이 지급됐



임마누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송정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으며 멕시코성결신학교 조성출 총장, 베데스다대 김효인 교수, 미주한인서예협회 유병희 이사장, 에반젤리아대 신현국 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철익 목사는 이 장학회가 지나

온 발사취를 되짚으며 "가난으로 고민하는 신학생들에게 작은 베품목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들의 믿음과 성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주디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지부: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T.213.453.6624 (12월~1월)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정찬용 변호사 인터뷰]

# 이성과 합리의 세계에서 크리스천 변호사로 살아가기

## “미국 법에서 기독교가 설 자리 갈수록 줄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법과 연결돼 있다. 미국법이 가는 방향이나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찬용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글렌데일 소녀상에 관한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 소녀상은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시블리(Sibley)라는 법률단체가 있다. 거기서 프로 보노(Pro Bono,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글렌데일 소녀상에 관한 소송을 무료로 담당했다. 일본인들이 글렌데일 도서관에 건립된 소녀상이 반일본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이 소녀상이 미국 외교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으나 사실 그게 말이 안된다.”

우선 미국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시 정부가 아니라 개인조차도 얼마든지 외교, 정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녀상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게 전혀 아닌 이유는 전쟁 피해자,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LA시에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 그것을 독일에 반하는 외교적 활동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글렌데일에선 연방하원에서 상정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외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30만불을 모금해 연방대법원에 상정되는 데 걸리는 4~5년을 위한 준비를 했다. 한인사회에서도 모금 활동이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두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지만 글렌데일 소녀상 사건 같은 봉사차원에서 한 일들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소녀상 소송을 돕기 이전 정 변호사는 2008년도 즈음 탈북자 망명 신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는 탈북자 특별법이 발효됐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망명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닌 한계, 신앙과 이성의 격차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법은 합리적이면서 이성을 중시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로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는 측면을 지닌다.”

“여호수아는 내일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대책회의를 안 한다. 2백만명이 배도 없고, 언약궤, 텐트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라고 묻지도 않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울 무기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궤를 맨 자들이 강물을 밟자 강물이 멈춘다. 건너가서도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50~60만 명이 할례를 받는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거동이 힘든데도 순종한다.”

“여리고성을 둘 때도 그랬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성애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생활 문제고 나라가 나서서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나 성경에는 굉장히 죄악된 것이라 적혀 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의 힘이 빠지는 원인이 그 때문이다. 합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합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타종교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라며 관대하게 대하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은 직장 내에서 할 수도 없다. 크리스천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법조계에서 기독교가 설 발판 좁아져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법조계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기독교 신앙과 법의 근거가 되는 ‘합리와 논리’가 상충을 일으켜 자칫 비합리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분야는 합리와 논리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도 크리스천임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한 미국 판사는 미국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1980년대까지는 존재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는 합리와 이성이라는 잣대로는 맞는 것이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죄다.”

아내를 통해서다. 아내의 강요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 차츰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합리주의자였던 그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10년 동안 꾸준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은 안 읽을지언정 자신은 억지로라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초등학교생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됐다. 그 중에는 여전히 착실하게 신앙을 배우려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다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다.

### 인권 문제로 교회를 떠나간 청년

“그 친구는 인권이 성경과 맞지 않다고 고민했다. 학생들이 공립학교나 대학에서 합리적 교육을 받으며 신앙에 대해 갈등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도 말이 되나 성경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왜 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는 이 같은 물음을 비롯해 사람들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신론자의 공격에는 구약 성경이 답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공격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다. 레위기 18장에 기록해 놓았다. ‘땅이 그들을 토해 낼 정도로 악했다.’ 즉 그들을 없애 버려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갈렘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에서 집안의 후손인 그니스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12 자파의 대표가 된다. 이런 면에서 구약을 읽는 게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몰라서 이런 공격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어렵게 쓰여 있기도 하다. 외국인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가 됐듯 갈렘도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훌륭한 사람을 주신 거 같다.”



정찬용 변호사

기독교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또 그것을 토대로 기독교가 법에서 밀려나고 있는 오늘날, 믿음을 법적인 차원에서 변호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법조인회(Christian Legal Society)같은 단체도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 조직 차원에서 법적 행동을 취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로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며 기독교가 연합해서 접근해야 할 굉장히 큰 차원의 일이다.”

“얼마 전 이한탁 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20년 넘게 싸운 분들이 계시다. 한인 기독교 사회에서 그 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분들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 20년 넘게 그분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다. 크리스천 법률 연구소가 있어서 이한탁 씨 사건 같은 것을 도와줬다면 지금쯤 그 센터가 칭찬받고 좋은 증거를 받았을 것이다.”

또 그는 유대인 교수 중에는 율법과 미국의 법을 적극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분이 계시나 크리스천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과 기독교’를 주제로 연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페퍼다인 대학의 유대인 교수가 쓴, 유대 율법과 미국의 법을 비교한 논문을 읽은 게 기억난다. 그분은 그 분야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는 이것을 연구한 논문도 없고 가르치는 교수도 없다. ‘Law & Christianity’ 이런 식으로 이 둘을 함께 연구해보고 싶다. 또 ‘합리적으로만 봐서는 해결 안되는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만 한다면 믿음은 설 곳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가’ 등을 논의하고 싶다.”

+정찬용 변호사는 로올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올라대학 학술지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의 선임편집장으로 있으며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한 주디 기자

### 이성의 논리, 성경과 달라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느낀, 법이

###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며 신앙 배워

그가 신앙을 시작한 것은 2003년

### 법과 기독교인의 삶, 연구 필요해

그는 미국법이 가는 방향과 법이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merican Idol K팝스타  
**한희준**  
Heejun Han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4 밀알의밤**  
**Open Your Eyes**  
(John 9:39)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크리스토퍼 더플리**  
Christopher Duffley

**10월 17일 (금) 7:30pm**  
ANC온누리교회 /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10월 18일 (토) 7:00pm**  
주님의영광교회 /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10월 19일 (일) 7:00pm**  
베델한인교회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5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58,000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에게 총 \$161,400을 지급하였습니다.

예매처: 핫딜 http://hotdeal.koreadaily.com 213-368-9828 or 213-784-4628  
정음새(코리아타운몰라자 내) 213-387-6767 / 두란노서원 213-382-5400 / Joy 기독교서점 323-766-8793  
일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로데오갤러리아점 213-380-8885,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가기독교복합점 714-636-7430 / 북음사 562-865-4949 / 윌타리서점 310-325-9191 / 매일서점 626-912-2225 / 베델서점 949-854-9191

특별후원: **FOREVER 21** **Ace Engineering, Inc.**

Ticket Donation: \$10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http://www.MilalMission.com) / 657-400-9570

**밀알장애인장학 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공니무장학생

자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장애인 중 선발

공니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공니무장학생: 1인당 \$1,000 (월시률)

신청마감: 2014년 11월 14일(금)

발표: 2014년 12월 15일(월) - 개별통보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http://www.milalmission.com)

# 믿음이 적은 자들이

##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 8: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도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시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마8:14-15)”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후로 그 집은 가장이 없이 그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에 그 장모가 함께 살며 베드로의 빈자리를 메워 딸의 집에서 그 가정을 도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열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면서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앓아누운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은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경합니다.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물에 물을 긴기 위해 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봄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을 그 동네로 모셔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 온 동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8:17)”했습니다.

구약에서 1600여년을 두고 보내주

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집과 그 동네가 다 알아보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19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좇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말 속에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대를 걸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중심이 간절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애쓰다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에워쌌을 보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며 불안에 떨며 죽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 노력을 다해 배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가능성이라는 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 하며 헛고생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곳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3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한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태연하게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가 많은 백성들이 다 들도록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하다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부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임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랑이 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기대,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한 환란이고 풍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즉시로 해결이 서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 기대와 혈기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풍파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기독교복음선교회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포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하이테크 vs. 하이터치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새로 이사하면서 케이블 TV를 주문했습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 케이블 박스를 연결해 주고 갔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리모트 콘트롤로 작동을 시도해 보지만, 리모트 콘트롤 자체가 너무 복잡해 엄두도 못 냅니다. 단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어느새 아이들에게 리모트 콘트롤을 맡기며 채널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TV 채널이 세 개뿐이었던 시대에서 자란 저와 채널이 천 개가 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이폰 신제품 6가 출시되면서 예약 주문량이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시되자마자 품귀 현상에 웃돈까지 주며 하루라도 먼저 소유하려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의 전쟁입니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른 기술의 전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렇게 야단스

러운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기도 그 기능을 십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른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진득한 면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세상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만큼이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두들기며 수천수만 번의 선택 속에 자란 세대라 그런지 이전 것을 갈아치우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이테크 신제품

에 열광하는 현대인의 모습도 결국 하이터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전화기 한 대로 쓰던 시대에서 식구 수대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로 변한 것은 '나만의 것'을 찾는 하이터치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비행기는 앞에 큰 화면을 틀어 놓고, 아무 선택권 없이 틀어주는 영화를 보았지만, 이제는 좌석마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많은 영화와 음악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이테크는 하이터치의 필요에 따른 수반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목회의 방법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조명 및 시설 등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의 기술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입니다. 저는 시설 투자와 더불어 오늘도 예배 후 성도님들의 손을 잡기 위해 교회 마당에서 서서일 것입니다.

## 최상의 삶



이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우리의 삶에 아픔, 문제, 외로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나아집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그 때가 최고입니다.

먼저,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요14: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북쪽에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

고, 다윗도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자마자 곧바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성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죽음은 최상의 곳을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최상의 곳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상처가 없고, 신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믿었던 부모, 자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

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지금 몸을 떠나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놀라운 곳입니다.

끝으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한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항상 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믿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남자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믿는 행위'가 더 중요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가 준 작은 책(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다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특성을 지녔음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약이 쓰다는 말은 약의 효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써도 몸에 좋으니까, 병든 몸을 회복시키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성에 물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향 수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 사람의 지식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말도, 가치관도, 목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산성화 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름을 자주 주면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부딪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되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박하고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기피 대상이었던 존재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만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만 들어가는 변화가 분명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b>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b>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b>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b>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b>박옥현(77세)</b>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b>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b>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b>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b>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b>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b>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b>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b>한국 010-7928-7986</b>
비만, 우울증, 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b>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b>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b>오일동(52세, 가디나)</b>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카콜라 쿨톤을 빤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b>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b>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b>마사루(58세, 부산)</b>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b>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b>민현자(65세, 방배동)</b>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b>박성섭(63세, CA 토렌스)</b>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b>정대진(16세, 엘에이)</b>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암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b>피터 리(65세, 엘에이)</b>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b>이정수(51세, 서울)</b>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b>미세스 팍(뉴저지)</b>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b>이은영(32세, 세리토스)</b>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b>장영순(53세, 한국 서울)</b>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b>김정훈(76세, 한국 대구)</b>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b>조인숙(53세, 시카고)</b>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b>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b>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b>필립 남(72세, 벨리)</b>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b>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b>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b>최정석(50세, 엘에이)</b>

### 건강과 성경이야기 23

오늘은 불치병이라 불리는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 위암(胃癌): 동양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장암: 유럽,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입니다
- 간암(肝癌): 간에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 폐암(肺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 췌장암(胰腺 癌):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하며,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치주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내어서 걸리는 암입니다.
- 혈액암: 백혈병이라고도 하며, 적혈구가 너무 적어서 피의 공급이 안 되서 생기는 암입니다.
- 유방암(乳房癌): 유방 내에만 머무는 양성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 이외에도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등이 있고,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율도 적다고 합니다. 퍼지기 시작한 암은 고치기가 힘들며 말기의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며 다만 몇 가지 함양제에 의존하여 환자의 생명을 늘려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약 8,000km의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하였고, 그 중에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로 이송되는 내용입니다. 이송하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가까스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28장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 축,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탄 나무를 거두어 불에 놓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없으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둘러 생 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를 물고 있던 사탄은 불에 던져 질것이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치료방법을 생각한다면 의사 누구에게 상담해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맑고 깨끗한 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세포를 없앤다고 키모를 하는 것은 암세포, 적혈구, 백혈구가 동시에 자폭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헬스판이 손상되면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모든 선택은 환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본인의 치료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무로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b>동부총판</b>	<b>201.983.8333</b>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b>하와이 총판</b>	808.359.337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머사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텍사스 (로양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드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플로리다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학생 감소는 불가항력… 다그치지 말고 본질 회복을”

## 기교연, “교회 교육 혁신할 5가지 방안은 바로 이것들이다”



기교연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 이하 기교연) 주최 ‘2015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가 9월 29일 오후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기교연은 이날 ‘교회교육의 새로운 대안, 교회-가정-학업을 연계하라’를 주제로, 교회학교 교역자들 뿐 아니라 각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박상진 소장(장신대)이 ‘2015년 교회전망 및 기독교교육’을 주제강연했다.

### 저출산 고령화, 피할 수 없어

박상진 소장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각 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자들을 너무 다그쳐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큰 파도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전했다. 이러한 ‘통계학적 파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예정통합총회 기준으로 연령별 편차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년·초등부는 2만여명, 소년부는 3만여명이 줄어드는 등 20-30%의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물론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는 이외에도 세속적 교육열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전체 유소년 인구의 감소”라며 “이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과거에는 교육부서를 맡은 교역자들만 다음 세대의 위기를 절감했지만, 이제 담임목사들이 ‘다음 세대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위기’임을 깨닫고 적극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싶어한다”며 “2015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회학교 살리기나 ‘교회학교 부흥’이라는 접근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면 오늘날 교회학교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교육을 ‘신앙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그 방향은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박상진 소장은 교회학교의 ‘전통적인 학교식 체제(Schooling system)’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교회학교가 지닌 한계로는 첫째로 발달단계를 기본으로 한 학년별 구성이고, 둘째로 교육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데도 자라나는 세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셋째로 기본적으로 대중을 전제로 한 일방적 교육체제이고, 넷째로 가정과 분리된 신앙계승에 맞지 않는 구조이며, 다섯째로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인 학업 문제와 분리된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었다.

### 교회교육의 새 패러다임 5가지

이 같은 교회교육 한계점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안으로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는 일방적 강의 형태가 아닌 ‘관계를 강조하는 구조로의 변화’이다. 박 소장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 강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소규모 인원을 오히려 내면을 변화시키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 상징적 모델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관계적 교육구조에는 멘토링을 비롯한 일대일 만남, 토의를 강조하는 소그룹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가정과 회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로는 교사 1인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식 체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나눔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다. 박 소장은 “오늘날은 모든 교육에 있어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다”며 “신앙공동체 안에 참여함을 통해 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내면화하듯 일종의 문화로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신앙 형성에 관심이 된다”며 “비록 소수 인원이더라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대 간 만남과 구성원 간의 삶의 나눔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는 공동체 교육이 요청된다”고 했다.

셋째로는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구조’이다. 박 소장은 “복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적 삶은 스스로 참여하여 경험할 때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경험하고 참여하여 온 몸으로 체험하

는 신앙교육, 청각이나 시각만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며 “학생들이 삶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경험할 때 진정한 신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로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전인교육’이다. 복음적 삶이 형성되려면 주일 아침 분반공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6일간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가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박 소장은 “주일학교가 역사상 많은 공헌을 했지만 결정적 한계가 있다면 바로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라며 “이제 부모를 자녀들의 신앙교육 책임자로 세우는 부모교육을 교회에서 실시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과 학업의 연계’이다. 박 소장은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은 신앙과 학업이 분리돼 있다고 이해하지만,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교육원리는 바로 신앙과 학업이 연계돼 있다는 것(잠 1:7)”이라고 했다. 신앙과 학업을 연계시킬 방안으로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외에도 방과후 학교나 주말학교, 그리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단기교육 등을 꼽았다.

이대웅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미용실

##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힐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AM ~ 10:00 PM

Tel: 213-739-1022

### 포항중앙교회 창립 67주년 맞아 말씀 축복 성회 개최

서임중 목사 후임으로 손병렬 목사를 제9대 담임목사로 청빙한 포항중앙교회는 10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새



서임중 목사



손병렬 목사

포항중앙교회는 1947년 방상식 목사와 12명의 교인들이 일제의 신사가 있던 포항시 덕수동에 창립했으며 서임중 목사에 앞서 정철수 목사, 여준성 목사, 박창근 목사, 김용근 목사, 원리정 목사, 주인정 목사, 김명흥 목사가 시무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서임중 목사, 손병렬 차기 담임목사와 더불어 서석훈(에틀랜드연합장로교회), 박승현(광주 비야교회), 이요한(캐나다 토론토연합교회), 박희민(나성영락교회 원로), 정연원(일본 오사카한인교회), 안성복(다우니제일교회), 이용덕(벨렐장로교회), 이승재(뉴욕은혜교회) 목사 등 총 13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서임중 목사는 10월 9일(목)에 열리는 예배에서 원로목사 및 포항남노회 공로목사로 추대되고 손병렬 목사는 후임목사로 위임된다.

이번에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손목사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 중곡동교회, 서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를 거쳐 2004년 남가주 동신교회에 부임해 10년 6개월 간 시무했다.

앞서 8월 20일에 열린 ‘제 9대 담임목사 환영 감사예배’에서 그는 “가난하고 상처 입은 교인과 이웃을 섬기며 한국 교회의 롤모델을 보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주디 기자

### 선교계 지도자들, 사회와 교회의 ‘8개 영역’ 변혁 논의

변혁한국, KWMA, KWMF, 세계성서화운동본부가 9월 29~30일 분당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선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와 교회 변혁 토론회’를 열고, 가정·미디어·문화예술·비즈니스·정부·교회·교육·다음 세대 8개 영역 변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8개 영역 중 ‘다음 세대’를 제외한 7개 영역은 ‘세계변혁운동’이 설정한 변혁 목표다. 세계변혁운동은 2001년을 기점으로 2004년 10월 태국에서 세계복음화쟁점포럼이 열리기까지 전 세계 300 도시 8,000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태동했다.

이 운동은 문화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 변혁 글로벌 챌린지 회의’에 48개국 4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중·장기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첫날 오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7)는 주제로 기조강연자로 나선 한정국 선교사(KWMA 사무총장)는 한국사회가 21세기 들어와 급속히 다문화·다문화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목회 및 전도 패러다임으로 대응에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성경적·성찰적이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한국 문화에 적합한 자신학을 개발할 것 ▲안티기독교의 공격과 사회의 비난 앞에서 분열된 행동을 삼가고, 최대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사회 변혁 앞에 분연히 일어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건전한 한국신학으로 ‘고난과 함께하는 축복의 신학’ ‘위기와 변혁의 신학’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신학’ 등을 꼽았다.

류재광 기자



###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동성애 옹호 논란

“동성애 죄이지만 동성애자도 목회자 될 수 있다”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콜로라도에 위치한 그랜드 래피즈커뮤니티칼리지(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에 연설자로 나선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레비즈언, 동성애·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과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침례교인이며, 각각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지역의 침례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동등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러하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부 기관에서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카터는 조지아 주의 마라나타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다.

과거 카터를 비롯한 텍사스 남침례교인들은 여성목사 안수를 거부하거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남침례교의 보수적인 태도에 반발해 교단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바울은 여성들에게 머리에 장식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남자들에게는 수염을 자르지 말라고 했고, 정육을 이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권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모든 예배자들은 이러한 특정한 성경구절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또한 게이나 레즈비언도 침례교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가 간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죄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 간음은 동성애보다 중한 죄”라면서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예수 역시 동성애자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남침례교인들은 “동성애나 낙태 반대 등은 오랜 세월 지켜져 온, 남침례회 전통”이라며 “카터의 주장은 대다수 남침례교인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카터의 이러한 언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는 큰 논쟁이 일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세계적 밴드 U2의 보노, 빌리 그레함에게 시(詩) 헌정

시 '믿음의 여정' 통해 존경심과 사랑 표현



2002년 촬영된 사진으로 오른쪽부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보노,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국제 구호 운동가인 보노(Bono)가 빌리 그레함 목사를 위해 시를 헌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노는 지난 2002년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그레함 목사의 자택을 방문해 그를 만난 이후 '믿음의 여정(Journey of Faith)'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으며, 현재 이 시는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서 전시 중이다.

영국인인 보노는 스스로를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가 이끄는 U2는 인간 존재와 신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곡들을 발표해 왔다. 그는 또한 가장 활발하게 국제 구호활동에 동참하는 세계 유명인들 중 한 명이다.

빌리그레함복음전도협회(BGEA)는 이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스 캐롤라이나의 농부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전했는지 알려주는 시”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시는 빌리 그레함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Ruth Bell Graham) 여사와 나란히 마주앉은 보노의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 역시 2002년 그레함 목사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그레함 여사와 보노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다.

빌리그레함전도협회는 최근 U2가 새로운 앨범 '송즈 오브 인노센스(Songs of Innocence)'를 발매한 데 따라 이를 기념하며 시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U2의 이 앨범은 지난 주부터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제공되고 있다.

보노는 싱어송라이터인 팻 분(Pat Boone)을 비롯한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빌리 그레함의 87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 '고마워요, 빌리 그레함(Thank You Billy Graham)'을 녹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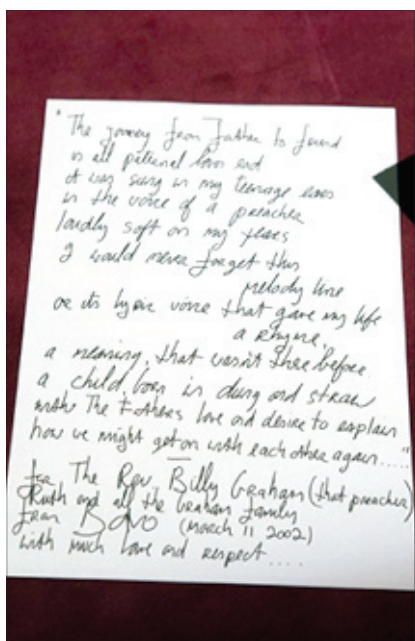
미국 복음주의 사회정의 단체 소저너스(Sojourners)는 보노와 그레함 가족과의 우정이 2002년 U2가 미국에서 투어 공연을 하던 당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노는 빌리 그레함의 전화를 받았고, 이 때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다. 빌리 그레함이라니!'라고 말했다. 비행기를 빌려서 그가 (나와 약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날아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를 태우고 두 시간 정도 달려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의 아내 루스 그레함 여사를 잠깐 만났다”며, “그레함 목사의 축복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보노는 뮤지션으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해 왔지만, 그레함 목사와의 만남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레함 목사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난다. 교회 사람들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 음반을 사라고 하는 학교 친구들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를 알려 준다. 사실 그 둘은 비슷하긴 하다. 남부 출신에 콧소리로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물려든다는 점에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U2의 보노가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헌정한 시 '믿음의 여정' ©빌리그레함전도협회

## 교회 및 선교교회

###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박현성** 담임목사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천왕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엘리아 김**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진유철**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정우성** 담임목사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김광삼** 담임목사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김요섭** 담임목사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영** 담임목사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11:00  
천왕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나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김경철**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정장수** 담임목사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기쁨, 열매

**박승부** 장로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조인수** 담임목사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씨너지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넷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현연섭** 담임목사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428-7878 F. (323)932-0788 / kuhnhyo@hanmail.net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천왕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김중호** 담임목사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일예배 오후 7:30

에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류종길** 담임목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신현호** 담임목사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민중기**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볼리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박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 이인(2세)을 책임지며, 아인(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일) 오전 06:00  
문학교(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근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철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수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11시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산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 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분반)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최호선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8: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0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월-금) 오전 05:30  
12631 E. Imperial Highwa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 주간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 뉴욕목사회, 시와 음악과 함께 한 목회의 여유

시가 있는 목회 주제로 자작시 발표회 열어



뉴욕목사회가 '시가 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22일 자작시 발표회를 열었다.

적박한 이민환경 속에서 묵묵히 목회를 하고 있는 뉴욕 목회자들이 지난 22일 저녁 뉴욕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모처럼 만에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시가 있는 목회'를 주제로 목회자 자작시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와 음악, 또 찬양이 있는 이날 문학모임을 통해 목회자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의 여유를 보여줬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성경묵상 중에서, 역경 중에서, 이민생활 중에서,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시상을 적은 시들을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시들은 이민목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 시를 낭송하는 중간 중간 무대에 오른 유상열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우병만 목사의 가곡, 유태웅 목사의 건전가요는 어느새 다가온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했다.

시가 낭송될 때마다 유상열 목사는 피

아노로 분위기를 보조했다. 목회자들의 모임이기에 찬양 순서도 잊지 않았다. 목회자들이 문학과 찬양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 12명의 목회자들이 시를 발표했다. 발표자는 △김연규 목사(모세의 싯답나무) △우병만 목사(가을의 기도) △이영상 목사(가을이 오는 소리), 임병남 목사(고향) △유태웅 목사(빈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임지운 목사(Forgiveness) △장현숙 목사(사명자의 길) △조의호 목사(청개구리 더 울지 않으니) △지인식 목사(이민 갈매기) △윤세웅 목사(크리스천 시인들) △황동의 목사(초로의 향내) △김길홍 목사(천지창조) 등이다.

목사회장 취임 당시, 목회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황동의 목사는 이날 인사를 통해 "바쁜 목회 중에도 신령한 시를 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목회현장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메마르지 않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 "주께 받은 소명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

###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



헤더럴웨이 새교회에서 열린 2014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이 지난 22일부터 워싱턴주 헤더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C&MA 연장교육에 참석한 교단 소속 미주 지역 목회자 100여 명은 주님께 받은 소명의 길을 다시 한 번 굳게 붙들고 은혜 가운데 목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조현배 목사

이날 개회예배를 인도한 조현배 목사(시카고 한인서부교회)는 "목회는 영광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길"이라며 "목회의 길은 눈물 없는 갈 수 없고, 고난과 환란, 핍박이 없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조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며 "영광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회자의 길, 소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 모든 C&MA 소속 목회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번 연장교육은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설교와 제자훈련에 대해 깊이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TEE 코스 가운데 "작은 목자의 삶"이

란 주제로 심홍섭 목사가 제자훈련 인도법을 교육하고, ATSS의 교수 임장기 목사가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도왔다.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19)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 세계 81개국에서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2천여 개의 산하교회와 40만 명의 성도, 2만 개의 선교지교회와 450만 명의 선교지 성도가 소속된 '세계선교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는 복음주의 교단'이다. 현재 미국에서만 전 세계로 9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다.

C&MA의 설립자 심슨 목사는 19세기 후반 미국에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을 드와이트 무디 목사와 함께 주도했으며,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찬송가 456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08장(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등과 같은 주옥같은 찬송가들을 작사 및 작곡했다.

또한 Nyack College를 통해서 선교사를 훈련시키므로써 이 거대한 운동을 세계 선교로 이끈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C&MA 한인총회(Korean District of the C&MA)에는 180여 명의 교역자가 가입해 있으며, 미국(동부, 동북부, 동남부, 중부, 서부, 서중부, 서북부)의 7개 지역회 산하 85개 교회, 한국에 5개 회회를 포함하여 총 90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150개 회회를 목표로 선교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박인화 목사 “저돌적으로 전도하라” 강조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보면’ 주제로 세미나

2014 애틀랜타 복음화대회 강사로 초청된 달라스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는 2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보면’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전했다.

톰 레이너 목사의 책 [Autopsy of a Deceased Church]를 기반으로, 매년 뉴송교회가 소속된 남침례교에서만 8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심각성을 제기한 박인화 목사는 죽어가는 교회의 조직에 대해 ▲성도수가 감소한다 ▲장기적인 무관심에 빠져있다 ▲지역사회가 교회의 존재를 모른다 ▲목회자들이 2-3년 주기로 계속 바뀐다 등을 꼽았다. 또한 이런 교회들은 ▲과거를 영웅시하며 ▲선교와 구제에 예산을 쓰지 않고 내부적인 일에만 사용하며 ▲대사명이 활발하지 않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이끌려 가는 경향이 있으며 ▲모여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시설을 유지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신학생 시절만 해도 ‘할렐루야 전도대’를 만들어 거의 매일 전도를 했던 열정이 있었는데, 20~25년 목회를 하다 보니 어느새 타성에 젖어 전도하지 않게 됐다. 이민교회 목회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 은혜로 뉴송교회가 성장해 새 성전으로 이전했지만 웬지 마음이 답답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지 고민하다 T4T라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10년 동안 170만 명에게 침례와 세례를 주고, 15만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한 중국 선교의 입지전적인 인물 잉카이 목사(Ying Kai)가 창시한 T4T(Training for Trainer) 운동은 개척 선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담고 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훈련은 그리스도께로 인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헌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T4T 훈련은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2014 애틀랜타 복음화대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한 박인화 목사

서 검증된 교회개혁운동의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박 목사는 T4T를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 올랐고 이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담임목사의 인도를 성실하게 따라온 성도들의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실제 선교지에 적용된 내용을 이민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다.

“결국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 선택하라고 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NO’를 하면 떠날 각오까지 했다. 다행히 성도들 역시 저의 진심과 대사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교회 전체가 ‘영적 노마드 작전’을 펼쳐 간단한 전도훈련을 통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 체질이 전도를 당연히 생각하는 것으로 확 변화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크루즈 선이 아니라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저돌적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순종해 씨를 뿌리자”고 강조했다.

박현희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로 나아갈 것”

교회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차세대 사역에 헌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지난 28일 교회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교회 역사 4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차세대 양육과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난 봄, 교회 바로 맞은 편에 구입한 6만 3천 SF 규모의 건물을 청소년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또한 ‘기독교 명문 사립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UCIC가 프리스쿨에서 초등학교 5학교 과정까지 허가를 받은 데 따라 교실 두 동을 추가로 마련한다. 기독교 인재 양성을 향한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을 표명한 시애틀 형제교회 UCIC에는 현재 349명의 학생과 49명의 교사가 성경을 근간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의 40%가량 되는 인도계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다.

권준 목사는 “시애틀 형제교회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사

람이 크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한다”며 “세상을 이끌어 갈 리더를 키우고,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모든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결단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기도를 쏟아 부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1년 15명이 모여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후 지금까지 시애틀 한인 이민사와 함께 해 온 시애틀 형제교회는 지난 2000년 권준 목사가 3대 목사로 부임하면서 가정사역, 선교사역, 회복사역, 여성사역, 실버사역, 차세대사역 등 교회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미주 교계에서 주목 받는 한인 교회가 됐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p><b>오병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b>건강한 교회</b>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p> <p>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축성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김영길 담임목사</p> <p>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민경업 담임목사</p> <p><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p> <p>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3부예배 오전 11:00 4부(찬년예배) 오후 1:00</p> <p><b>남가주동신교회</b>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p> <p>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p> <p>박옥덕 담임목사</p> <p><b>남가주빛내리교회</b>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p> <p>허규암 담임목사</p> <p><b>놀익연합감리교회</b>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이서 담임목사</p> <p><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p> <p>김한요 담임목사</p> <p><b>베델한인교회</b>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p> <p>남상국 담임목사</p> <p><b>오픈바이블교회</b> OPEN BIBLE CHURCH</p> <p>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p> <p>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영아예배 (수) 오후 7: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이승필 담임목사</p> <p><b>새로운 교회</b> 이 새해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종과 기쁨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된 자들이 복을 받기를 위하여</p> <p>4496 Larwin Ave. Cypress, CA 90630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물)</p> <p>EM예배 오전 10:00 (FC제물)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p> <p>세리토스장로교회</p> <p>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p>	<p>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목요일예배 오전 7:30</p> <p>김민재 담임목사</p> <p><b>예친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p> <p>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시 사무실)</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p> <p>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영아예배 (수) 오후 7: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이승필 담임목사</p> <p><b>얼버틴 침례교회</b></p> <p>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p> <p>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최상준 담임목사</p> <p><b>얼버틴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p> <p>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p>
<p>김삼도 목사</p> <p>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p> <p><b>얼버틴 할렐루야교회</b></p> <p>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p>	<p>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권해설성경공부)</p> <p>이승필 담임목사</p> <p><b>새로운 교회</b> 이 새해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종과 기쁨을 사모하며 온전하게 된 자들이 복을 받기를 위하여</p> <p>4496 Larwin Ave. Cypress, CA 90630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우대권 담임목사</p> <p><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p> <p>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여름축성예배 오전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p> <p>엄영민 담임목사</p> <p><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p> <p>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p>
<p>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침례 오후 7:30</p> <p>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p> <p>최국현 담임목사</p> <p><b>은혜와진리교회</b>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p> <p>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p>	<p>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월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p> <p>한기홍 담임목사</p> <p><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oc.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p> <p>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 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p> <p>앤드류 김 담임목사</p> <p><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p> <p>18842 Teller Ave. Irvine, CA9261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p> <p>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p> <p>주혁로 담임목사</p> <p><b>주님의 빛 교회</b></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b>CMF선교회</b>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터링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100% 미국 야생 산삼

HQ  
山  
蔘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근 뿌리 근 뿌리  
정성스럽게 캐셨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 15. 만성피로나 허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효효과
-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로데오밸리에서 아주관광 볼내)  
LA 본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교인들에게 500달러씩 주며 “선한 일에 써 달라”



시카고 라살스트리트교회

미국의 한 교회가 ‘선한 일에 써 달라’며 교인들에게 500달러씩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는 25일 시카고에 위치한 라살스트리트교회가 320명 교인들에게 500달러짜리 수표를 한 장씩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회 측은 동봉된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권했다. 수표에는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교인 발렌시 해스팅스(42)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곧 엄청난 책임감이 들었다”고 했다. 라살스트리트 교회는 지난 6월 뜻하지 않게 들어온 수입으로 이 선행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라살스트리트교회는 지난 1970년대 인근 3개 교회와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40년 만에 이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고, 지난 6월 주택단지를 매각하면서 160만 달러라는 큰 수입이 생긴 것이다. 담임목사인 로라 트루엑스와 장로들은 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 신도들에게 선행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돈은 교회 전체 이름으로 선한 목적에 쓰기로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트루엑스 목사는 “이 돈을 주택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교회에는 부유층에서부터 노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뜻깊게 잘 사용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前 영국 총리 “전도서 가르침처럼 스코틀랜드 하나될 때”

분리독립 무산 후 갈등 딛고 연합으로 나아가길 촉구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성경 가르침을 기반으로 스코틀랜드의 화해와 연합을 촉구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 18일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졌으며, 그 결과 찬성표 45%, 반대표 55%로 독립이 무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독립을 지지해 왔던 알렉스 살먼드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분리를 열망했던 이들은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그리 크지 않은 표차는 찬반을 달린 주민들 간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브라운 전 총리가 스코틀랜드가 투표 결과를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최근 연설을 통해 전달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구약의 전도서 구절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스코틀랜드교회 목회자인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연설 하셨다면 아마도 성경 구절을 전하셨을 것이다”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로 시작되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까지를 인용했다. 그는 “성경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가르친다. 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현재의 자리를 발견한다”며, “싸울 때가 있고 연합할 때가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연합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의 기반을 찾으려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출신의 브라운 총리는 이번 주민투표에 앞서 영국 주요 정당들을 대표해 반대운동을 이끌어 왔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전부터 스코틀랜드 교회는 공식적인 중립 입장을 발표하며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화해와 연합”이라고 강조해 왔다. 스코틀랜드의 최대 개신교단인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는 주민투표일에 하루 앞서 이뤄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찬성에 투표하는 사람들과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는 같은 스코틀랜드인이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투표일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더라도 견해차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일 다음날 우리가 일어날 때는 (결과에 상관없이)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우리의 이웃인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인구의 8%,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잉글랜드의 침략 역사로 인해 반잉글랜드 정서가 지속되어 왔다. 1707년 연방헌법에 의해 단일국가에 속하게 된 이후에도 서로 다른 역사와 언어, 문화, 종교로 갈등을 빚어 왔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 분리가 영국 내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유럽 지역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손현정 기자

### 오바마, 유엔 연설... “죽음의 네트워크 해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슬람 국가(IS) 무장세력 공습과 관련해 “이 죽음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연합세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 같은 킬러들이 이

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무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IS 합류자들에게 “전장에서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국은 IS를 무력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존경심을 표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적으로 종파주의와 극단주의 적결은 중동인들 자신의 세대 간 임무”라며 “어떤 외부의 힘도 내부 영혼을 변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 박해받는 형제들 위해 기도하자

프랭클린 그레함, 아베디니 목사 구명 위해 연설



아베디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 백악관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발언 중이다. 옆은 아베디니 여사와 자녀들.

이란에서 고아들을 돕는 사업을 펼치던 중 기독교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복역 중인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를 위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목소리를 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의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미국교회에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했다. 아베디니 목사의 복역 2주년을 맞아 최근 백악관 앞에서 열린 기도 집회에 연사로 나선 그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그중 가장 위대한 일은 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밝혔다.

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300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또한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거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벌이지도 않는다”고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해 벌어진 반인도적인 범죄들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 집회에 참석한 나그메 아베디니 여사는 “남편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고통스럽고, 또한 아빠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디니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함 목사는 또한 아베디니 목사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려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극단주의자들의 행위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무슬림들을 향해 촉구했다. 그는 “평화로운 종교의 신앙인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야만적으로 참수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슬람국가(IS)에 의해 벌어진 참수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평화의 종교는 지난 4월 보코하람

아베디니 목사의 복역 2주년이었던 지난 26일에는 미국을 포함한 30개 국가들에서 기도 집회가 개최됐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아베디니 목사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베디니 목사 석방 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 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의 조던 세컬로우 대표는 “아베디니 목사는 전 세계 박해받는 교인들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구금, 폭력, 살해를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교인들의 얼굴이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위해 더욱 하나되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 ◆ ATS 가입 감사 예비 및 후원의 밤 ◆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평소 대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4년 10월 1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주소 :**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 성 대 학 교**  
 (구 미주성결대학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 제29회 성결포럼 ◆

한국의 교육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유석성 총장을 모시고 “평화”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평화**  
 “Peace: A Perspective of Dietrich Bonhoeffer”

**발제 :** 유석성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논찬 :**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0:30 am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기타 :** 발제 후 질의와 응답, 오찬과 교제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 목회학 박사과정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레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착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입학설명회

**날짜:**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30 - 12:00

**장소:** LA복음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Office: 323.641.0691 (영육구원)

담임: 이영성 목사

**문의:** 이효주목사 (973-713-3009)

### 입학원서마감일

**2015년 1월 입학:** 2014년 9월 1일까지

**2015년 5월 입학:** 2015년 2월 1일까지

### 입학조건

- M. Div. 학위나 Th. M.
- 각 학위 성적 (GPA) 3.25 이상 선호
- M. Div. 나 Th. M. 학위 취득 후 수년의 Full-Time 목회경력
- 본 과정은 한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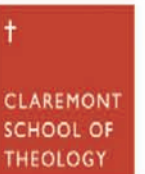
###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00달러, 2014년 5월 기준 (3학기 동안 24학점 + 논문4학점)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http://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1)

#### 머리말

지난 2014년 9월 5일 현대신학의 거장인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가 소천했다. 판넨베르그는 1928년 독일 발트해 연안인 스테틴(Stettin)에서 세관원의 아들로 출생하여, 동베를린의 훔볼트대와 괴팅겐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950년 바젤에 내려가 당시 신학계를 주도한 칼 바르트 밑에서 '교회교의학'을 공부했다. 그는 1951년 하이델베르그대로 옮겨가 구약학자 폰라드와 조직신학자 페터 브룬너, 에드문드 슈링크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밟고 교수자격후보생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1955년에 교수자격을 얻어 1958년부터 3년간 부퍼탈교회대에서 몰트만과 함께 교수로 일했고, 마인츠대에서 7년간(1961-1968) 가르쳤다. 1968년부터는 뮌헨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94년 퇴임할 때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천주교 신학이 주도하는 뮌헨대 신학부에서 개신교 신학부를 만들어 튀빙겐의 몰트만과 같이 현대신학의 쌍벽을 이룬 신학의 거장으로, 바르트의 말씀 신학 이후의 현대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선의의 라이벌이요 두 살 위인 몰트만이 아직도 건강하고 한국에 10명 이상의 박사 문하생을 길러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오가며 소망의 신학 활동을 펼치는 것에 비하여, 그가 세상을 뜬 소식을 접하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는 인간적으로 까다로운 성격 탓에 한국인 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몰트만의 인기가 높지만, 그는 해외보다는 본국 독일에서 왕엘과 더불어 독창적인 신학자로서 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신학은 영미권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1년 11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창조와 진화,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이슬람 등 현대 신학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며, 신학이 다른 학문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전을 던졌다.

그는 86세 생을 향유함으로써 장수한 것이긴 하나,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찍 별세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그의 신학을 한국에 소개함에 있어서, 아마도 1977년 여름

에 필자가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 장신대와 숭실대 현대신학 강좌에서 독일 현대신학자들 가운데 판넨베르그를 먼저 소개하고 1980년대에는 학술지에 글도 쓴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1990년대 오늘날 중진 학자 가운데는 김영선 교수(현재 협성대 재직)와 신현수 교수(현재 평택대 재직)가 판넨베르그 신학사상 연구로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안다.

정통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필자는 판넨베르그의 신학 사상에 깊이 매료되지는 않았으나, 전공 영역이라 그의 사상의 독창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필자는 근 40년 전인 1970-80년대 그가 현대신학을 주도했던 볼트만 중심의 실존론적 신학과 바르트의 말씀 신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역사를 기독교 신학의 지평으로 삼음으로써 현대신학에 보인 하나의 새로운 독창성을 소개했던 것이다.

####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국민일보 미션판(국민일보, 현대신학의 거장, 판넨베르그 별세, 신상목 기자, 입력 2014-09-11 09:51)이나 기독교일보가 보도([기독교일보], 독일 대표적 '희망 신학자' 판넨베르그 별세, 이동운 기자 dylee@cdaily.co.kr, 입력 2014.09.11 11:27 | 수정 2014.09.11. 18:19)한 바와 같이 판넨베르그를 몰트만의 소망 신학의 범주 안에 넣어서 그를 소망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그는 불편해 할 것이다. "소망"이란 용어는 철학자 가운데는 무신론자 블로흐, 신학자 가운데는 몰트만 사상의 주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루터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판넨베르그는 개혁교회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몰트만의 소망 개념이 지니고 있는 현실을 변혁시키는 급진적 내재성 성향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넨베르그에게 소망이란, 그가 강조하는 다가오는 미래의 힘인 하나님의 초월성에 동반하는 개념이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사의 지평 속에서 다가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의 초월성과 보편성이다.

신학은 이러한 하나님 존재의 보편성을 보편적 이성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사실의 언어로 증언하는 것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이다. 여기에 신학의 공공성이라는 학문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 판넨베르그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한시적 기능이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하나님 나라의 전조(前兆)라는 것을 변증하고자 한다(Pannenberg, The Apostle's Creed in the light of Today's Questions, trans. Margaret Kohn, 1972, 152-155).

판넨베르그는 볼트만을 비롯한 내적 회심을 강조하는 실존적 경건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실존주의 학파의 시도나 계시를 보편사가 아닌 원역사(Urgeschichte)라는 완전한 항구에 정착시키려는 바르트 학파의 시도에 반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에 근거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역사적 계시에 대한 접근이란 맹목적 결단이 아니라 지성적 통찰이며,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편성과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신학적 주장들은 그것들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실재에 대한 엄격한 비판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학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것(Pannenberg, "What is Truth? in: Basic Question 2: 1-27)이라고 하였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란 잠정적인 것이다.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신성이 만민에게 비로소 보편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므로 미래만이 궁극적 진리의 초점이라고 본다.

#### II. 보편사를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 1) 계시는 역사로서 주어진다

판넨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 연구 시절 수 년 동안 계시의 본질에 대한 그의 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바르트의 구속사 개념이 사실(史實)적 지식과 계시(啓示)적 지식 사이의 괴

리를 가진 협착성에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계시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계시 사상은 판넨베르그 서클로 알려진 연구 그룹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룹의 연구 결과는 1961년의 소책자 『역사로서의 계시』(Offenbarung als Geschichte)라는 소책자로 출간되었다. 판넨베르그는 루터신학자 엘러트(Werner Elert)와 알타우스(Paul Althaus)의 사후(死後) 독일 안에서 주도적으로 학과 형성의 인물을 가지지 못했던 신학적 보수주의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판넨베르그는 폰호프만(Johannes von Hofmann)에 의해 대표되는 엘랑겐 학파(Erlanger Schule)의 구속사 신학이나 쿨만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구속사 신학이 시도하는 신앙과 이성의 분리, 계시개념의 성령론적 제한성에 반대해서 보편사(普遍史, Universalgeschichte)를 기독교 계시 개념의 지평으로 주제화한다. 그는 구약성서의 계시적 역사 개념과 헤겔의 이성적 역사 개념을 그의 보편역사 기획 속에서 조화시키려 한다.

판넨베르그는 계시가 역사 과정의 자체 내에서 증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그는 바르트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이 세계과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오며, 역사의 종국에 가서야 그 완전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역사적 계시는 보편적이어서 보는 눈을 가진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열린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종류의 세속적 경험 안에서 신앙적 암시를 끌어내고자 한 것이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 Eerdmann, 1991, 18-19).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신학 개념이 이성적 통찰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신학의 특수성을 수용하고 있다.

##### 2) 역사 의미는 종국에서 드러난다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개념은 구약성서의 전승사와 특히 묵시론적 역사 이해에 의거한다. 묵시록의 역사 이해에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전역사가 신적 행위의 전체로서 표상(表象)되어 있다. 신의 인식은 역사의 모든 사건이 완결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W. Pannenberg, Die Offenbarung Gottes in Jesus von Nazareth, 1963, Neuland III, Bd. 157.). 역사의 의미는 역사의 종말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판넨베르그는 유대교 묵시록이 이 보편사를 표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역사 한 가운데서 아직도 도래치 아니한 역사 종말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해답의 열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라고 판넨베르그는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수의 복음선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기(豫期)였고, 그의 부활은 세상종말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선취(先取)이다. 신의 계시는 예수의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났으나, 이미 완결된 것으로서 앞에 놓여 있지 않다. 예수의 역사는 그의 통치가 아직도 오고 있는 역사(歷史)로서의 하나님 계시로서 항상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 3) 신학의 두 가지 축: 보편사와 교회

판넨베르그에 의하면 신학이란 두 가지 축을 가진다. 하나는 보편사라는 축(軸)이다. 이 축에서 신학은 인간 사상 전체 안에 그 지평을 갖는다. 역사적 이성 상응하는 축이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축이다. 신앙에 상응하는 축이다. 신학은 교회라는 동질적인 공동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명백하고 의도적인 신앙고백을 하면서 사는 신앙공동체 안에 그 지평을 갖는다(Richard John Neuhaus, "Wolfhart Pannenberg: Profile of a Theologian", in: Pannenberg, Theology and Kingdom of God, de. Richard John Neuha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이병섭 역,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50). 판넨베르그는 그의 보편사 신학의 착상에서 양자, 역사와 계시, 역사적 이성과 신앙이라는 두 축을 종합하고자 한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버티컬 처치

제임스 맥도널드 | 두란노 | 332쪽

미국 하비스트바이블교회를 시무하는 저자는 제목처럼 '수직적 교회(Vertical Church)'를 추구한다. 1988년 18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현재 시카고 7개 지역에서 13,000여 명이 모이는 멀티사이트 교회로 성장했다. 저자는 시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한 25년간의 현장을 책에서 과감히 공개했다.



#### 좋은 교사를 꿈꾸다

소중화 | IVP |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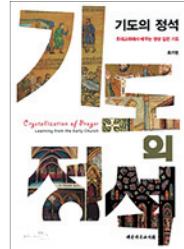
기독교적 수업을 향한 한 교사의 평생 분투기. 저자는 다양한 도전과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 그리고 깨달음을 풀어놓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사들의 고민과 문제의 핵심을 짚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적 수업의 실체를 제시한다. '기독교 교사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대담.



#### 기도의 정석

조기연 | 대한기독교서회 | 320쪽

부제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는 영성 깊은 기도'처럼, 한국교회에 '좋은 기도의 텍스트'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저술했다.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공예배 기도는 물론 사적 기도까지 포함하는 '모범 기도문'들을 대거 수록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이여령 | 시공미디어 | 292쪽

술한 화제를 모았던 '우리 시대의 지성' 이여령 박사의 방송 '80초 생각 나누기'에 나오는 순수한 글만을 모아, 단행본 형태로 출간했다. 짧은 메시지이지만 독창적인 저자의 에세이는, 당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생 함께한 것이 '국어'라 자부하는 저자는, 혼탁한 텍스트가 넘쳐나는 시대에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글을 선사한다.



## REVIEW

###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 자체의 함정

C. S. 루이스 스무 번째 시리즈 <세상의 마지막 밤>

홍성사 출간 C.S. 루이스 정본 클래식 스무 번째 시리즈인 <세상의 마지막 밤>에는, 그가 곳곳에 기고했던 에세이 일곱 편이 담겨 있다. '기도의 효력', '믿음의 고집에 대하여', '세상의 마지막 밤' 등 세 편의 작품은 기독교에 관한 글이며, 나머지 네 편인 '씩은 백합', '스크루테이프, 축배를 제안하다', '선한 일과 선행', '종교와 우주 개발'에는 교육과 문화, 노동과 과학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담겨 있다. 글 곳곳에서 그의 '전공'인 영문학자로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 등 잘 알려진 많은 저술에서 그러했듯 이 작품에서도 좀처럼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의문을 갖거나 관심을 가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신학자보

다 날카롭게 변증하고 있다. 이 같은 통찰력은 매일의 삶에서 사고하고 공부하고 느끼고 겪고 헤쳐나온 일들이 그의 글감과 주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고정관념들에 반기를 들고, 다시 바라보고 끝까지 추적하여 역설과 반전의 메시지를 이끌어낸다. '완고한 무신론자'로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의심하다 '뻑뻑진 회심'에 다다랐기에 나오는 사유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기도의 효력'에서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함정과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기도한 대로 일이 이뤄질 수 있지만 애초 그렇게 될 일이었을 수 있고, 그 일이 명백한 기적이라 해도 기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없다. 기도가 어김없이 '성

공'을 거둔다 해도, 그것으로 기독교 교리가 입증되지 않는다. '기도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 실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가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증거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기도는 마법이나 명령, 기계 장치나 하나님께 드리는 조언이 아닌 "요청"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미숙하고 불안정한 인격체들과 더없이 구체적인 인격자와의 인격적 접촉이다. 기도의 성격은 무엇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



세상의 마지막 밤 C. S. 루이스 | 홍성사 | 152쪽

경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가할 특권을 받은 자, 그 안에서 협력하여 '작은 삼지창을 휘둘러야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고집에 대하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아무런 증거나 확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과물이나에 대해 따져본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던의 시 첫 행에서 제목을 따온 '세상의 마지막 밤'에서는 재림(再臨) 또는 종말의 교리가 두려움이나 이생의 삶에 대한 포기로 귀결되는 게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나머지 네 작품에서도 루이스는 그만의 독특한 역설의 세계를 펼쳐 놓고 있다.

이대웅 기자

#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1세기형 전도법 : 패러다임과 방식을 전환하라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말하는 '넛지 전도'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남자 화장실 모든 소변기에는, 중앙 부분에 검정색 파리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대개 '불일'을 볼 때 조준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변기 주변이 더러워지기 십상인데, 눈앞에 목표물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자연히 발사물을 변기 가운데에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도 '파리 열풍'이 불

었다.

이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책 <넛지> 열풍 때문이었는데, 책의 저자들은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영단어 넛지(nudge)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행동경제학상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넛지 전도'를 제안한다. 그의 신간 <넛지 전도>의 부제는 '전도 불가능 시대의 전도법'.

스윗 박사가 말하는 '넛지 전도'는 사랑의 동기로 주어진 환경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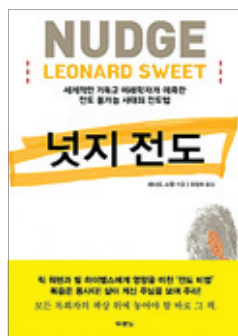
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는 '씨 뿌리기'이다. 싸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넛지 전도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반드시 환영받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넛지 전도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 전하는 사람(그는 '넛지'라 부른다)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 행하는 넛지 전도는 최선이 아니다. 사람들을 결단으로 이끌기보다는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단의 필요성을 무시하진 않는다.

한 마디로, 넛지 전도는 사람들을 강제로 앉히거나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비난하며 접근하는 방법이다."

넛지 전도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초점을 두며, 죽음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더 염려한다.



넛지 전도  
레너드 스윗 | 두란노 | 340쪽

넛지 전도는 세 가지 '혁명적인 개념'을 따른다. 첫째, 예수님을 살아 계시며 우리 세상에서 활동하신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지 알 만큼 예수님을 충분히 잘 '안다'. 셋째, 전도자들은 세상을 '넛지'하여 살아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넛지한다. 이러한 넛지를 저자는 '작은 구원'이라 부른다.

'불신지옥'은 공포영화 제목으로나 소비되는 21세기 한국 또는 선

진국 사회에서, 여전히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책이 제시하는 '방법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2부에서 '당신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넛지하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는 효과가 없었다.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라 좀 자제시키고 싶었거나, 아니면 너무 절제되어서 명령을 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의 전략들은 좋게 말하면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고, 나쁘게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살아왔지만, 성경적인 출애굽이 아니었다."

저자는 책에서 '관계 전도', '삶으로 전달하는 복음',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 등의 명제를 '포스트모던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놓았다. 프롤로그와 1부 1장 만으로도 저자가 말하려는 바를 대충 파악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성경을 토대로 한 그만의 독특한 시대적 통찰이나 스토리텔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찬송가 65곡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은혜의 찬송 이야기  
김남수 · 김동넉 | 아가페북스 | 280쪽

세상의 모든 노래에는 만들어진 사연이 있다. 알고 부르면 더 와 닿는다. 모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피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가사와 곡조가 나오게 된 과정에는 더욱 진한 은혜의 향기가 묻어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새 488)'를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Edward Mote)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술주정뱅이들을 쉽게 볼 수 있던 영국 런던의 뒷골목에 살던 그는, 결국 사춘기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다.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고민하던 그는 기술이라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여러 군데를 전전한 끝에 가구 공장에서 흥미를 느낀다. 무엇보다 그를 측은히 여긴 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열렸다.

어느 주일 아침, 그 아저씨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예전 같으면 딱 잘라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따라갔다. 존 하얏트(John Hyatt) 목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소년의 마음을 두드렸다.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가구 공장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모했다.

어느 날 모트는 출근 도중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해 주고 싶어졌고, 공장 뒤편 큰 바위에 올라 소리쳤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이 고백은 그대로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가 됐다.

그는 37년간 기술자로 일하다 55세의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 21년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

심지어 작사·작곡 미상(Anonymous)의 찬송에도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다. 아름다운 곡조가 돋보이는 찬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새 484)'에는 아일랜드 선교사 성 패트릭(Saint Patrick)의 헌신이 담겨 있다.

영국 한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란 패트릭은 16세 때 해적에게 붙잡혀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6년 후 성인이 되자 탈출해 영국행 배에 오른 그는, 30세 되던 해 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다시 떠난다.

노예가 아니라 선교사로 아일랜드 땅을 밟은 패트릭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각종 미신이 난무하던 아일랜드에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0만여 명이 회심했다. 그가 죽고 300여 년 후인 8세기 무

렵, 한 무명 시인이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지었다. 이 찬송은 고대 아일랜드어로 쓰여 오랫동안 묻혀 있다. 1905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이 시에 아일랜드 민요 '슬레인(Slane)'의 청아한 선율을 붙여 불렀다.

책 <은혜의 찬송 이야기>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갈보리 산 위에' 등 주옥 같은 찬송가 65곡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 에도 고국의 땅이 소천했다는 편지를 받고 작곡한 장수철 교수의 밝은 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새 570)', 시각장애인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쓴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새 550)' 등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아 이러니'들도 실려 있다.

저자는 새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의 작곡자이자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숨겨진 찬송 이야기>를 쓴 김남수 박사(침신대)와 그의 아들 김동넉 선생, 김남수 박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고, 사연이 있는 65곡을 선정했다"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자료를 수집했고, 설교집과 자서전 등을 통해 가사와 곡을 짓게 된 동기를 살폈으며, 생존 작가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제는 '삶으로 증명한 선진들의 고백'.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일본 “나가노 기적”의 주인공들, 비전트립 위해 LA 방문

## 예수비전선교회 유학생 선교사들, 학업과 사역 병행하며 복음의 싹 틔워



예수비전선교회 비전트립 참가자들과 박문환 목사가 아가페사역자훈련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가운데 박문환 목사, 오른쪽 조성원 목사, 김귀아(나가노 대학 4), 이와사쿠 메구미(나가노 대학 4), 백유란(나가노 대학 4), 왼쪽 앞에서부터 다카하시 지혜(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재학), 사카모토 사오리(간사이 대학 경제학과 졸업, 일본어 강사)

최근 일본 나가노 대학 졸업생들과 일본인 한국 유학생들이 LA에 있는 아가페사역자훈련원을 찾았다. 갓 대학을 졸업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예수비전선교회(대표 조성원 목사)의 비전트립을 위해서다. 예수비전선교회는 한국 청주에 본부를 두고 지역교회가 선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초교파적 연합체다. 이들은 단일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미전도국, 선교사들이 꺼리는 땅,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관용구가 따라붙는 일본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공부를 하면서 일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선교사로 갔지만 동시에 학생으로 간 것이니 공부를 잘 못하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물어왔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또 왜 이렇게 밝은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나는 크리스천인데...’라며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줬다. 때로는 친구들의 걸모습과 속내가 달라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한 백유란 자매의 말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CTS에서 8.15 특집 ‘나가노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방송되었으며 일본 NHK를 통해서 몇 번 방영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조성원 목사는, 예수비전선교회에서 파송한 유학생 선교사들이 이뤄낸 ‘나가노의 기

적’을 조용한 부흥운동이라 불렀다. “혼슈 지방에 위치한 나가노현은 일본에 세워진 첫 번째 개신교 교회인 요코하마 해안교회(1871년 설립)에 이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100여 년 전 우치무라 간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부흥사경회를 열며 학교를 세우고 활발히 활동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그 운동들은 사장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노에 유학생 선교사를 보내셔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이라 유학생이 오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유학생의 90퍼센트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수한 대학원에 진학해 모범을 보이니 차츰 우호적이 됐다. 시의원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고 NHK 뉴스에도 몇 번 등장했다.”

예수비전선교회는 전문인 사역자로 팀을 구성해 일본교회에 파송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기도 하고 대학 재학 중 휴학하고 가서 섬기고 돌아오거나 일본신학교에 진학해 일본교회 목회자가 되어 사역하는 경우도 있다. 후쿠오카, 구마모토, 고베, 도쿄, 나가노 등 일본 전역에 70여 명을 파송했고 현재는 40여 명 정도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단체가 파송한 유학생 선교사들은 한국의 미션스쿨과 일본교회의 젊은이 사역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일본대학에 진학해 학부 4년을 다니거나 박사 과정까지 10년 간 일본교회를 섬기며 일본인 친구들을 전도한다. 일본의 나가노 대학, 오사카 산업대학, 구마모토에 있는 소조대학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나가노 대학에 유학생이 가서 사역한 지는 올해로 6년이 됐

다. 졸업생들은 치바대학원 등 일본의 우수한 대학원에 진학했다.

조성원 목사는 “자신의 전문직을 가진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려한다.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에 능숙한 교수, 연구원을 배출해 이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 된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수비전선교회가 일본선교에 협력하게 된 것은 2004년 3월 후쿠오카복음선교센터(대표 구원준 선교사) 헌당식에 참석하면서부터다. 그 해 여름 56명의 단기선교팀 파송을 시작한 이래 2006년부터 매해 중장기 학생 및 전문인 선교사를 일본의 여러 지역교회에 파송했다.

“현재 일본에 있는 8천개의 교회 가운데 1천 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다. 일본에 신학교가 70여개가 있으며 그 중 문부성 인가를 받은 학교는 30개 정도다. 일본 신학교들은 진학률이 낮아 목회자가 부족하다. 학생이 없어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교회가 한국에 학생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에 약 150년 간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개신교와 가톨릭교인수를 모두 합쳐도 일본 인구 1억2천7백만 명의 1퍼센트도 안 된다. 2010년 일본크리스천신문 자료에 의하면, 평균 예배 인원은 27명이며 교인 수 1000명이 넘는 교회가 3개, 400명이 넘는 교회가 20개다. 거기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간판을 내리게 된다.”

“CCC 선교사가 파송된 곳 중 유일하게 선교가 안 된 나라가 일본이다. 90년대 초반에 CCC 국제본부

에서 일본CCC를 폐쇄시키려 했으나 구원준 선교사가 파송돼 와세다 대학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어서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에 선교센터를 세웠다. 예수비전선교회는 그와 협력해 일본선교와 일본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선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조 목사는 이번 비전 트립에 참가한 유학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비전선교회가 나가노 대학을 방문해 나가노 대학 학장, 교수들과 교류 회의를 하던 중 나가노 대학 교수가 두 명의 유학생 선교사 김귀아, 백유란 자매에게 나가노 대학에 와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두 자매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유창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니 다들 놀라워했다.”

“김귀아 자매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 일본이 복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따라서 기독교와 사회복지, 종교와 복지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션스쿨이 아니기에 이런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데 한국 목사님들도 상당히 놀라고 일본교수들도 감동했다.”

“유학생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청년부를 부흥시켜 2부 예배가 생겼다. 일본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학사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일본 학생, 중국 학생을 한 주간씩 초청했는데 2-3백 명씩 왔다. 그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행사를 교회로 옮겨서 치른다. 그 행사에 참석한 친구들이 교회 분위기와 문화가 좋아 교회를 다시 찾아오니 일본 목사님들이 놀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선교의 걸림돌이 산재한다. 와(和)문화와 토착종교, 조직문화가 그것이다.

“일본의 문화를 와 문화라고 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기화 한다. 일본에 선교사가 가서 일본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또 일본은 애니미즘, 토데미즘이 흔하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고 잡신을 많이 섬겨 영적으로 혼탁하다. 영적인 것이 문화에도 영향을 줘 일본문화에는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

는 게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목사는 아가페사역자훈련원과 협력을 결심했다.

“일본청년들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데려와서 세계를 보여줘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미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가페사역자훈련원의 시스템과 취지가 좋아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아가페사역자훈련원에 데려와 훈련해 일본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인 사역자로 길러낼 것이다. 올해는 탐방을 위해 왔고 내년부터 같이 훈련받을 것이다.”

이번 비전트립에 참가한 김귀아 자매는 일본선교를 가게 된 계기에 대해 “처음부터 선교를 결심한 것은 아니다. 17살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회자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비전선교회를 알게 됐다. 공동체를 체험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자연스레 일본에 대해 듣게 돼 일본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2,3학년 때 일본어를 공부하고 나가노 대학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청주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 다카하시 지혜는 재일교포 출신 목회자 어머니를 둔, 목회자 자녀다. 그는 일본사람들은 기독교 지식이 전혀 없고, 교회에 대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접한 공동체생활이 새로웠다고 했다.

일본인 부모를 둔 사카모토 사오리는 간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1년간 공부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3개월 앞두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한국에 와서 공부하며 한국교회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조성원 목사는 “아가페사역자훈련원과 한일미국교회 청년들이 협력해 일본선교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 세계선교전문일꾼으로 성장하길”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 주디 기자

사랑, 섬김, 나눔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프로젝트 <올투게더 All-together>

<올투게더 All-together>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고동락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한글/스페인어 무료교육

교육일시 10월 11일-12월 24일 / 등록기간 10월 10일까지

✓ 등록비, 교육비, 교재비 일체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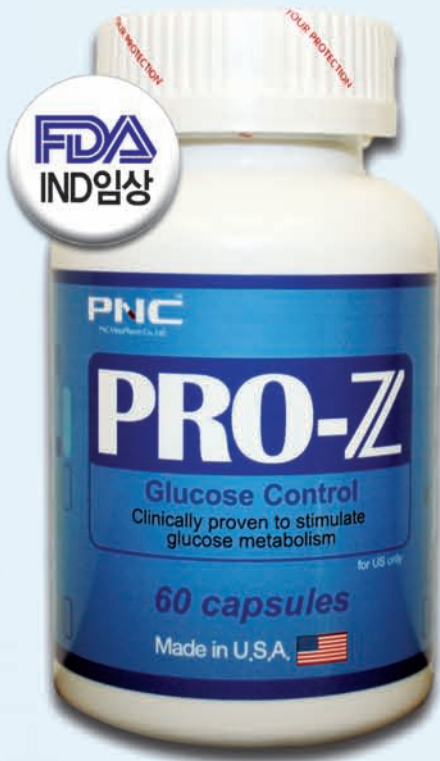
한인교회 천로장로교회와 라틴교회 Iglesia Gracia교회가 후원

LA와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 고아, 이혼가정 자녀, 홀사모, 싱글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우선 혜택  
 \* 신청자에 한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갖고, 이후 수강 가능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13-509-3779
www.pilgrimla.org / email: shnoh3927@gmail.com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이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과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